시 론

거대한 해일이 오고 있다

천 세 진
문화비평가·시인

세계는 언제나 문제를 품고 있다. 색과 형질이 다른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 문제들은 하나의 발원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 발원지에서 만들어진 문제가 세계라는 강으로 흘러들어 중첩되어 흘러간다. 문제와 문제가 섞이거나 충돌한다. 한 사회가 만들어낸 풍경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잘라 분석해보면, 서로 다른 곳에서 발원한 문제들이 한데 모여 복잡한 풍경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문제는 세계의 방향을 바꾼다. 홀로 발생한 문제들이고 크기가 작다면 찻잔 속에 가둘만한 갈등이나 일으키며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의 문제들이 본래 가야 할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크기가 만만치 않고 게다가 여러 문제가 모여 있다면 이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성격이 확연히 다른 문제들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충돌하며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이 오히려 당연하게 다가올지도 모른다.

1900년은 지구와 인류에게 중요한 분기점이다. 20세기 이후의 인류공동체는 20세기 이전의 인류와는 다른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 질적으로도 다르지만 크기가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파괴력 또한 강해졌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지리적, 종교적 문제 등 모든 문제가 힘과 덩치가 커지며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울타리를 넘어서 폭주하게 됐다. 울타리 안에서도 길이 잘 들여지지 않는 문제들이었는데 그 문제들이 울 밖에서 충돌하게 되었다. 길이 드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모든 공동체와 개인은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들의 크기와 시급성을 따져 대응한다. 그에 따라 세계와 개인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한다. 현명한 공동체와 개인은 최선의 방향을 찾아낼 것이고, 그렇지 못한 공동체와 개인은 문제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달을 것이다.

현재 세계의 가장 시급하고 영향력이 큰 문제는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후 위기 이상의 문제를 찾을 수 없다. 몇 년 전부터 기후학자들은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는 진단을 이견 없이 내놓고 있다. 실제로 체감하는 기후는 기후학자들의 진단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방향의 진행이 10년 쯤 더 이어지면 인류는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도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들의 정책과 공동체 곳곳에서 발견되는 풍경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진지한 대응을 느낄 수 없다. 위기는 생각과 행동의 전환을 통해 해소할 수 있고, 그때의 행동과 생각은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입으로는 위기를 말하면서도 실제의 행동은 위기를 해소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며 꾸리고 있는 미래는 주식 투자, 과도한 소비, 먹방, 해외여행(오버투어리즘), 아파트 투기,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건물 짓기, 국지적으로는 줄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멈출 줄 모르는 인구 증가 같은 일들이 조금도 기세를 꺾지 않는 형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삶의 모든 방식이 울타리 안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되고, 이동 반경을 줄이고, 파괴적 소비를 줄이고, 건축을 유발하는 정책을 축소해야만 위기 지수가 조금이라도 낮아질 텐데 그럴 기미는 조금도 없다. 오히려 세계화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멀리 중국, 미국, 유럽에서 물건이 배송돼 오는 일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확대되고 있다.

말로만 기후 위기를 걱정하면서, 위기가 이미 목을 겨누고 있는데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음식과 패션, 더 먼 곳으로의 여행에 대한 파괴적인 욕망을 마주할 때는 정말로 갸우뚱해진다. 현재와 같은 인류의 생활방식이라면 기후 위기 문제는 계속해서 악화할 것이고, 10년이나 20년쯤 뒤에는 이제까지 인류 공동체가 유지해온 방향과 생활양식은 과거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정교해야 하고, 행동은 단호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두 번째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런 경우라면 문제 해결 방식을 바꾸거나 포기해야 한다. 어떤 문제들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기후 문제는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순간 인류의 운명은 끝나고 말 것이다.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다.

자치칼럼

광주마을형 타임뱅크의 적용가능성

이 용 연
마을자치연구소 대표

광주시의 통합돌봄사업이 확산되면서 마을단위의 풀뿌리 돌봄을 실천하는 타임뱅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0년 '구미사랑고리'에서 처음 한국에 도입된 타임뱅크 모델이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풀뿌리형, 사회적경제형, 공공서비스형으로 다양하게 진화하며 실천 중이다.

우리 사회에 아직은 낯선 타임뱅크이지만 영국, 미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등 30여 국가에서 벌써 시행 중이다. 우리도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에 대한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의 풀뿌리운동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타임뱅크(TimeBank)는 에드가 칸(Edgar S.Cahn)이 1980년대 미국에서 제안했다. 이는 경제 양극화, 고령화, 공공시스템의 결함, 적자예산, 공동체의 와해 등 현대 사회의 가족과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유력한 대안으로 시작됐다. 타임뱅크는 풀뿌리 마을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활성화해 이웃의 적극적 참여와 도움으로 돌봄 등 동네 생활 지원 서비스를 해결하고자 한다. 타임뱅크는 '모든 사람의 시간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철학에 바탕을 두고, 봉사에서 얻은 1점은 나중에 다른 사람의 1시간을 사는 데 사용하는 '타임달러'로 적립 계산된다.

타임뱅크는 사람들을 사회적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각각의 돌봄 행위는 호혜적 행위를 촉진해서 모든 거래관계로 사회적 자본이 구축된다. 곧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주장처럼, 돌봄 수혜자가 서비스제공자로 거듭 나 당당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적 존재감을 높여준다. 시장경제에서 소외되었던 취약계층이 자선의 대상이 아닌 도움을 주고받는 당당한 주체로 활동하게 한다.

현재 타임뱅크는 미국의 경우 약 500개의 타임뱅크가 등록돼 활동 중이고, 영국은 250개에 6천 개 조직이 참여하는 등 독일, 스페인,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활성화 되어 있다. 특히 영국은 외로움 담당 장관이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지역사회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구미사랑고리공동체'에서 알콜 중독자 모임, 호스피스 봉사 등 전문적 돌봄을 시행하다가 소외계층 노인돌봄 사업 등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전의 '청춘은행'는 지역사회 상호돌봄 플랫폼으로 타임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립대복지관은 '사이시옷시간은행'을 운영해 복지관 사용자와 인근 주민의 서로 돌봄과 서로 배움을 연결하는 타임뱅크를 운영 중이다. 춘천 '지혜의 숲'은 은퇴 시니어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으로 시작해 서로 배움, 서로 돌봄사업을, 가평 '샬롬자유교육공동체'는 대안중고등학교 학생자치회가 주도하여 대안경제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민자치회가 주도는 풀뿌리 마을돌봄모형이 서울 정릉2동, 부산 화명동, 잔포동 등에서 추진 중이며, 각 지역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중간 조직도 관심을 갖고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광주는 올해 96개 주민자치회를 전환 완료해 전국적으로 주민자치를 선도해 오고 있으며, 이제는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가 손을 잡고 마을자치사업과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할 단계이다. 이러한 마을자치 시범사업 중 하나로 광주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하여 풀뿌리 마을형 돌봄사업의 타임뱅크 적용 가능성과 시범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구미시 등 선도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코디네이터 등 운영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마을공동체 센터에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한 후 시범 동 주민자치회를 지정하여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취재수첩

시민이 걱정하는 지방자치

정 해 선
지역특집부 국장

지방자치가 중단됐다가 1990년 김대중 전 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13일간의 단식 투쟁으로 시행된지 33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초의회 등을 없애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단적인 사례다.

요즘 회자되는 이야기 중 하나다. 기초의회나 자치단체가 시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기초의회나 자치단체를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목포시의회가 제12대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불미스러운 사건과 논란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지난 제390회 임시회에서 원구성을 이루지 못해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지 못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또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도 책임자로써 사과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우려는 아직도 높다.

오는 9일 부의장과 관광경제위원장을 선출을 앞두고 후보로 등록한 일부 후보 의원에 대한 자질 때문이다. 거울을 통해 스스로 모습을 비춰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원 생활을 하면서 초심을 잃고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는지, 이권에는 개입하지 않았는지 등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존경받는 사람을 신사라고 한다. 신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신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훌륭한 어른이 지녀야 할 덕목을 겸비해야 한다. 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조직의 리더다. 조직은 리더의 크기를 넘을 수 없다. 리더의 덕목은 열정, 책임, 자기절제, 균형감이다.

자신들이 신사로서의 덕목, 리더로서의 덕목을 갖췄는지와 시민들이 우려하는 인물은 아닌지를 거울에 스스로를 비춰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도 되새겨 봐야 할 대목이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천년 공동체 전라도 경제동맹 선언으로 그쳐선 안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가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7년 만에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공동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선언문에는 3개 시·도간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초광역 교통망 확충, 동맹의 핵심인 재생에너지·이차전지·바이오·모빌리티 등 협력사업 발굴·협력, 지방소멸 및 지방재정 위기 극복, 동학농민혁명 선양 및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정체성 확립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울러 고흥-광주-전주-세종을 거치는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RE100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활용,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등에 합의했다.

전국적으로 메가시티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물론 수도권 1극체계를 극복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호남 인구는 1960년 595만명으로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23.8%를 차지했으나 2023년 기준 501만명으로 9.7%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수도권 인구의 비율은 20.7%에서 50.5%로 대한민국 절반을 넘어섰다. 광주와 전남 뿐 아니라 전북까지 망라해 공론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와중에 단체장들이 그 시작을 알렸다. 민선8기 첫 만남에서 광역 SOC 등 경제분야 중심의 상호 협력을 다짐한 것이다.

메가시티는 호남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 현안이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30년이지만 지방소멸의 절체절명의 위기다. 늦지 않았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맞닿은 1천년 공동체 전라도가 상생을 위해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선언으로 그쳐선 안 된다.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수도권과 경쟁·발전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으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인구감소 문제의 한 해법으로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3개 시·도는 미래 100년을 열어가기 위해 풍부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궁극의 목표는 바로 행정 통합이다. 대한민국 초광역 협력의 성공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전남도 역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호남권 연대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AI 2단계 사업 차질땐 광주시 전략 부재가 그 원인

지난 달 말 정부세종청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인공지능(AI) 2단계 등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국가AI데이터센터가 갖춰진 광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공지능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6천억원 규모의 AI 2단계(실증밸리 확산)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등 지연된 사전 절차로 차질을 빚을지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가 2025년 초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첫 관문인 예타 조사 대상 선정부터 만만치 않은데다 어렵사리 넘어선다 해도 소요 기간이 약 8-10개월에 이르기 때문이다. 오는 8월 예타에 포함돼도 물리적으로 내년 4월에나 완료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날로 급변하고 있는 AI산업이다. 대한민국이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선 글로벌 흐름을 따라잡아야 하는 시기로 한시가 급한데 한없이 지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2단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1단계를 통해 구축한 국가AI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실증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화 지원 체계를 2029년까지 갖추는 게 핵심으로, 광주시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예타 면제를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자 예타 신청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지역 AI산업 생태계 조성에 유리한 사업화 지원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광주시의 설명에도 연구개발(R&D)에서 비(非) R&D로 바꾸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예타 조사에 적극 대응해 기획재정부에 빠른 절차 진행을 요구하면서 예타 면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바람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전략 산업에 대한 전략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는 구상이 흔들리고 있다. AI는 광주의 새로운 먹거리다. 명실상부한 인공지능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이 중단없이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아침을 여는 詩

직박구리에게 배우다

김은아

마당에 직박구리 한 쌍 찾아왔다
늘 함께하는 부부이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대야에 받아 둔 물에서
날개를 펴고 어린아이 물장난치듯
건반 위 음표처럼 경쾌한 몸짓으로
서로의 악기가 되어 연주한다

허공에서 부리를 맞대기도 하고
날갯짓 맞장구 치며
길 없는 길 내며 온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는 나란히 가는 길
어느 순간도 같이하여
영원(永遠)이 된다는 것
직박구리 한 쌍이 가르쳐 주고 날아갔다.

(시집 '직박구리에게 배우다', 시와사람, 2024)

[시의 눈]

한때 나도 새를 쫓아다녔지요. 새처럼 날고 싶던, 새처럼 시를 노래하곤던, 그래, 새소리와 함께 아침을 맞던 때군요. 결혼하자 새집마냥 높직이 새집을 설계하고도 싶었네요. 오늘 직박구리 놀이터에 비가 옵니다. 앞산 굴참나무숲을 날아온 둘은 집앞 키큰 호두나무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베란다 난간에 잠깐 앉아 기웃대며 '영원'을 아느냐 묻습니다. 참, 가르쳐달라자 '살아보면 알지롱, 롱롱롱!' 철학은 끝, 그만 산죽숲 찌벌레가 부른다 전합니다. 만찬 후엔 건너 마을로 간다는군요. 그의 식후경을 얼마만큼 기다려야 답을 알려줄까요? 김은아 시인은 신안 팔금 출생으로 2010년 무등일보 신춘문예와 2011년 '시와사람' 당선으로 등단했고, 시집 '흔들리는 햇살'(2014) 등이 있습니다. 그는 생명체와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는 해밝은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CMYK